

# 햄버거 프랜차이즈, 새 주인 찾기 난항... KFC만 매각 성사

맥도날드 동원산업 M&A 검토  
높은 로열티 걸림돌... 계약 불발  
버거킹·맘스터치 인수자 찾지 못해  
KFC KG그룹, 지분100% 매각

프리미엄 수제버거들이 가세하면서 햄버거 시장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기존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새 주인 찾기가 난관에 부딪혔다. KFC코리아의 주인 찾지만 성사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업계 관심사였던 한국맥도날드는 동원산업과 인수합병(M&A)을 검토했지만, 지난 2일 동원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매각절차가 종료됐다.

맥도날드 본사가 제시한 매각가와 동원이 책정한 인수가 각각 5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격차가 상당한 데다 수익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기준으로 5%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래 불발 사유로 알려졌다.

당분간 한국맥도날드의 새 주인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



KG그룹은 지난달 KFC코리아 지분 100%를 550억원에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했다. 서울에 위치한 KFC 지점 모습 /KFC

계자는 “몸값 차이도 있지만, 글로벌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 계약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며 “영업환경에 관계없이 로열티를 글로벌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 수익성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4.6% 늘어난 9950억원을 기록했다. 직원점뿐 아니라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매출은 1조1770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고, 1988년 한국 시장 진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78억원, 당기순손실은 362억원을 기록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실적 공개를 시작한 2019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 중이다. 상황이 지속되면 매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버거킹과 맘스터치는 매각 가격 입찰차를 좁히지 못해 매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버거킹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 M&A 매물로 시장에 나왔다가 1년 여만에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매각 철회를 결정했다. 버거킹을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는 당시 버거킹 몸값으로 약 1조원을 부른 것으로 전해진다.

맘스터치는 지난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매각가를 1조원에서 6000억~7000억원 사이로 낮췄지만 결국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유일하게 KFC코리아만 매각이 성사됐다. KG그룹은 지난 4월 KFC코리아 지분 100%를 550억원에 사모펀드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에 매각했다. 매각 예상가 1000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KG그룹은 KFC코리아를 500억원에 인수한 2017년부터 글로벌 본사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영업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글로벌 운영 정책으로 인한 제약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본사와의 지속된 마찰로 이번 매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19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KFC코리아는 이번 매각 과정을 거치면서 앞으로 가맹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오케스트라 프라이빗에쿼티는 글로벌 KFC 브랜드 운영사 암브랜즈를 사모펀드의 주요 투자자로 끌어들였고, 국내에서도 가맹 사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KFC코리아는 향후 적극적인 가맹 사업을 펼쳐 몸집을 불릴 것으로 전망된다.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의 매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버거 시장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물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를 사로잡았지만, 고물가 시대에 햄버거는 더 이상 가성비 음식이 아니다”라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재료 고급화, 맛의 다양화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패스트푸드’의 이미지가 강해 이미 번신 또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가계예금 1.2兆위안 급감... “소비반등 신호”

(한화약231조)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5개월만에 가계예금 증가세 멈춰  
“자산투자, 대출상환 가능성 높아”

중국의 가계 예금이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이후 처음으로 큰 폭으로 줄면서 소비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가계 예금은 1조 2000억위안(한화약 231조원) 감소해 5개월 연속 증가세가 멈췄다. 감소폭으로 보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4월 위안화 예금 역시 4609억위안(약 88조8000억원)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금 급감에 계절적 요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중신증권 민명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예금은 매년 4월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지만 올해는 이전 대비 하락폭이 훨씬 더 가파르다”며 “예금 금리의 하락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 선호와 소비의 반등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가계예금은 작년부터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 2일 중국 베이징에서 노동절 연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자금성 관광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AP·뉴스시

중국의 신규 예금 규모는 2022년 26조 3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조 6000억위안이나 늘었다. 이 중 개인 신규 예금이 17조 8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7조 9000억위안 급증했다.

작년 소득이 정체됐음을 감안하면 늘어난 예금만큼 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계 소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단기예금은 변화가 거의 없고 정기예금만 늘었다는 점에서 불안한 경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됐다. 풀린 유동성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자 중국 당국은 예금금리를 낮추도록 했다.

다만 줄어든 저축이 바로 소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평안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일부는 저축을 소비하는데 썼지만 그런 지출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관리 상품에 투자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돈을 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실제 가계대출 잔액도 지난달 2411억위안 감소했다. 중장기 가계대출 감소액은 1156억위안으로 200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i@

## “中, 유럽 배터리 시장 파상공세 韓, 정부 차원 전략적 대응 시급”

무협 ‘EU 배터리 시장 동향’ 보고서  
“자금 지원 등 통해 추격 따돌려야”

유럽연합(EU)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한국 배터리 점유율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배터리와 경쟁하려면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EU 완성차 회사(OEM)의 배터리기업과의 제휴가 본격화되는 향후 1~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로 봤다.

배터리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선제적으로 수반되는 수주 산업으로 완성차 업체별 상이한 요구사항에 맞춰 생산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자금력

과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이다. 공장 건설과 수율 확보를 위한 시 운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년 내 수주 경쟁의 결과가 5~6년 이후의 시장점유율을 좌우하게 되므로, 단기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수주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신속한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이 EU 시장에서 중국기업과 경쟁에 밀리지 않도록 ▲자금 지원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충 ▲투자 세액 공제의 실효성 강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존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진흥기금’(가칭)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한·미·일 안보협력 가속도... 北 대응 협의 귀추

>> 1면 ‘양자·다자 연쇄...’서 계속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으로 이뤄진 한-EU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안보를 비롯해 보건·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현안 공조,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돼 다자외교에도 적극 나선다.

특히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워싱턴 선언’으로 체결된 한미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북한 대응 협의도 주목된다.

이밖에 29~30일 양일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다자정상회의이자,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정상회의로서도 처음이다.

참석 정상들은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간 실질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세계, 이 회장 출장 ‘뉴 삼성’ 이정표 분석

>> 1면 ‘JY, 머스크와...’서 계속

테슬라 전기차 핵심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만큼, 삼성전자 반도체와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와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출장에서 이 회장은 바이오·계약, 첨단 ICT, 인공지능(AI),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 최고경영자(CEO) 20여명을 만났다. 동부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서부 실리콘밸리 ICT 클러스터를 횡단하며 존슨앤존슨, BMS,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인과 회동했다. 엔비디아 창업자인 젠슨 황 CEO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만난 인사들은 인공지능(AI), 전장용 반도체,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이 회장이 직접 삼성의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점찍고 육성하고 있는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세계는 이 회장이 삼성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뉴 삼성’ 비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